

에보트, 심혈관 질환 환자 위한 흡수성 스텐트 업소브(ABSORB™) 국내 출시

- 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있는 기존 금속 스텐트 제품과는 달리, 업소브(ABSORB™)는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혈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장점 제공
- 전세계 12 만 5 천명 이상의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CAD)들이 업소브로 치료 받아

2015 년 10 월 15 일 한국 에보트는 세계 최초의 약물 방출 흡수성 스텐트인 업소브(Absorb™)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소브(Absorb™)는 심장의 막힌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정상화시켜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하는 스텐트의 기능을 가지며, 녹아서 완전히 흡수되어 혈관내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으로써 혈관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혈관이 본래의 기능을 찾게 되면 심장박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금속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혈관 속에 남아 혈관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왼쪽] 두 손가락으로 잡은 ‘업소브 (Absorb™)’
약물 방출 흡수성 스텐트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는 “업소브(Absorb™)는 혈관에 영구적으로 남는 그물망 모양의 금속 스텐트와는 달리, 막힌 심장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시킨 후에 혈관에서 완전히 흡수되면서 병변이 있는 혈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며, “업소브(Absorb™) 로 치료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혈관의 내경이 증가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업소브(Absorb™)로 치료

후에는 혈관이 원래 상태로 보존되어,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해지도록 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주 초 샌프란시스코 에서 개최된 ‘제 27 회 미국관상동맥중재학회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 TCT)’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ABSORB III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흡수성 스텐트 업소브(Absorb™)는 가장 우수하다고 확인된 자사의 약물 방출 금속 스텐트 자이언스(XIENCE®)와 유사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약 2,000 명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ABSORB III 임상 결과는 저명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에 동시에 게재되었으며, 미국에서 업소브(Absorb™)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애보트 본사의 최고 메디컬 책임자인 척 사이몬톤(Charles Simonton, 심장전문의, 중재시술전문의) 은“ABSORB III 임상시험 결과는 업소브(Absorb™)가 가장 우수한 금속 스텐트와 비교 시 그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업소브(Absorb™)는 체내에서 녹아 흡수되면서 몸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결과 업소브(Absorb™)로 치료 받은 환자의 혈관 본래의 기능을 찾게 해주는 괄목할만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애보트는 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는 금속스텐트와 차별화되는 업소브(Absorb™)만의 장기적인 이점을 증명할 임상 시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출시를 맞아, 박동택 한국애보트 바스큘러 사업부 대표는 “업소브(Absorb™)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 시술)에 있어 차세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애보트가 선도기업으로써 세계 최초의 약물 방출 흡수성 스텐트를 국내 시장에 출시 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애보트는 전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기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욱 전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심혈관 질환은 전세계 사망 원인의 1 위에 해당 하는 질환으로, 2012 년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약 31%인 약 1,750 만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0 만명에 달한다.¹ 국내에서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은 3 대 사망원인으로, 매해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 년 기준 국내의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는 79 만명으로 2003 년 50 만명에 비해 58.4%가 증가²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브(Absorb™)는 전세계 100 여개 국에서 시술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ABSORB III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소브(Absorb) 흡수성 혈관 스키펠드 (BVS)

애보트 흡수성 스텐트는 애보트의 자이언스(XIENCE) 관상동맥 스텐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혈관세포 증식 억제제인 에버롤리무스 약물을 혈관 내벽에 미세하게 방출한다. 에버롤리무스는 노바티스가 개발했으며, 애보트는 약물 방출 혈관 스텐트에 에버롤리무스를 사용해 왔다.

¹ Cardiovascular diseases (CVDs), WHO. January 2015. Available at :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7/en/>

² 2013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ecember 2013. Available at : https://hira.or.kr/cms/introduction/02/04/10/2013_03.pdf

에버롤리무스의 작용으로는 스텐트 또는 스캐폴드 기술 후 관상동맥의 스텐트 주위의 혈관 내막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보트에 대하여

지난 125 년 동안 애보트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애보트는 영양, 진단, 의료 기기,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등에 걸쳐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7 만 3 천여 명의 애보트 임직원들은 150 여개 국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 애보트는 세일즈, 마케팅, 물류 등을 담당하는 25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서울 본사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및 안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애보트에 관한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 www.abbott.com 과 www.abbott.co.kr 및 트위터 ([@AbbottNews](https://twitter.com/AbbottNews) 또는 [@AbbottGlobal](https://twitter.com/AbbottGlobal))를 참조할 수 있다.

Abbott Media:

Steve Kelly, +1 (408) 845-3427

Mira Jang, +1 (408) 250-5782

###